

“올해도 후끈”... 광주·전남 사랑의 온도 ‘100도’ 달성

전남 9일 광주 22일 목표치 도달
광주 7억·전남 21억원 초과 모금
경제난에도 개인·법인 고른 참여
“남은 캠페인 기간 더 많은 기부들”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와 혼란스러운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서도 광주·전남 사랑의열매가 ‘희망2025나눔캠페인’ 목표액을 초과 달성하며 사랑의 온도탑 100도를 돌파했다. 이는 개인과 법인 기부자의 고른 참여에 따른 결과로, 사랑의열매는 잔여 캠페인 기간에도 많은 시민과 기업이 기부에 동참해주기를 당부했다.

22일 광주·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에 따르면 희망2025나눔캠페인 53일차인 이날 기준 캠페인 모금액은 광주 55억6200여만원, 전남 134억6000여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광주·전남 사랑의열매가 당초 목표했던 금액인 51억2000만원과 113억9000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1도가 오르는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도 각각 108.6도와 118.2도를 가리키며 그야말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광주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48억9000여만원과 비교해 약 7억원이 더 모금됐고, 모금 종료 당일에서야 겨우 목



22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에 나눔온도가 100도로 표시되고 있다.

나건호 기자

표를 달성한 지난해보다 9일이나 앞당긴 이날 100도를 돌파했다.

앞서 지난 9일 목표액을 조기달성한 전남은 지난해 같은 기간 모금액 112억8000만원과 비교해 무려 21억8000만원을 추가 모금하며 나눔의 열기를 더했다.

오랜 경기침체와 탄핵정국 등의 영향으로 올 겨울 기부문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광주·전남 사랑의열매는 캠페인 종료를 상당기간 앞두고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는 일반 시민과 자영업자 등 개인 기

부자와 기관과 기업 등 법인 기부자의 고른 참여가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사랑의열매의 설명이다.

광주 사랑의열매 모금액 55억6200여만원 중 43%는 개인 기부자들로부터, 나머지 57%는 법인 후원자들로부터 모금됐

다. 전남의 경우에도 모금액 중 40%가량이 개인 기부자의 참여로 이뤄졌다.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동참은 기부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 예측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우려한 기업들이 신규 기부자로 잇따라 이름을 올리며 수억원에 달하는 고액의 기부금을 쾌척한 것도 큰 힘으로 작용했다.

특별모금을 비롯한 광주·전남 희망2025나눔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계속된다. 지역에서 모금된 기부액은 해당 지역에서 배분되는 것이 ‘나눔캠페인’의 특징인 만큼 사랑의열매는 지역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현 시점에서 시민들의 지속적인 기부 참여가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광주 사랑의열매 관계자는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신 광주 시민들 덕분에 지역이 더욱 희망차졌다. 시민들이 보여준 마음은 그대로 돌봄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하겠다”며 “캠페인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지역에 있는 소외된 이웃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사랑의열매는 5년 전인 ‘희망2020나눔캠페인’부터 매년 목표치를 초과달성하며, 이웃들에게 온기를 전해오고 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오해로 빛은 참극... 동료 살해한 50대 징역 30년 구형

피고측 “정신 불안 해아려 달라”
유족측 “고통 못 벗어나...엄벌을”

실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중 직장 동료가 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무참히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아파트단지 복도에서 출근

길에 나선 직장동료 B씨를 붙잡아 넘어뜨린 뒤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을 하루 앞두고 과도를 구입하는 등 흥기를 미리 준비한 A씨는 B씨가 출근길에 나설 때까지 약 1시간을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직후 A씨는 흥기를 아파트 설비 단자함에 숨긴 뒤 차량으로 도주했다가 3시간여만에 광주 북구 한 주차장에서 긴급체포됐다.

조사결과 직장에서 실적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던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B씨가 자신에게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했고 배신감을 느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사는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20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무기를 직접 만드는 등 계획적인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며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극심한 정신 불안 상태에 시달리다 범행에 이르렀고 정신 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해아려 달라”며 “잘못된 생각과 행동으로 잘못을 저질러 죄송하다. 갈등을 원활하게 풀지 못했고 평생을 누우치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 측 법률 대리인은 “유족들이 배우자와 아버지를 잃고 아직도 고통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A씨가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형을 유리하게 받고자 하는 자백일 뿐 진심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2월17일 열린다.

민현기 기자

장성서 산불진화대원 지원한 70대 체력검정 중 사망

장성에서 산불진화대원 체력 검정을 치르기 위해 계단을 오르던 70대가 숨졌다. 22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0분께 장성 장성호 인근에서 A(77)씨가 의식과 호흡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광주소재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장성군에서 선발하는 산불진화대원의 체력 시험을 치르고 있었으며 15kg의 물통을 들고 아파트 6층 높이인 계단 200개를 오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정성아 기자**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